

플로베르의 침묵U

EXHIBITION

2015 / 01 / 19

이현

침묵의 순간과의 조우
플로베르의 침묵U 2015. 1. 7~2.
24 갤러리스케이프(<http://www.skape.co.kr/wp/exhibitions/current/?lang=ko>)



고명근 <Dreams of Building-10>필름, 플라스틱 64×139×79cm 2002

프랑스 소설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소설에서 상세한 설명이나 묘사를 거부하며 문학에 쓰이는 언어 자체를 실험한 작가로 평가 받는다. <플로베르의 침묵>은 플로베르가 당대의 소설 경향에서 벗어나 언어의 침묵을 탐구한 것에 착안해 기획된 전시로, 시각적 화려함이나 명료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개인을 에워싸 온 침묵의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. 특히 이 전시는 어렵풋하거나 숨겨져 있던 의미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주목한다. 과거의 기억, 사라진 존재를 위한 애도와 관계된 그 찰나의 순간은,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공간을 확장한다.



김승영 <깃발> 소금, 깃발, 모터, 형광등, 블라인드 가변크기 2012~13

이번 전시에는 고명근, 김승영, 유영진, 이혜승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. 회화나 사진 같은 평면작품은 지상 전시실에, 부피가 큰 설치작품은 주로 지하 전시실에 설치됐다. 고명근은 <building> 연작을 선보인다. 필름지에 투명하게 인화한 사진으로 구성된 이 사진조각은 작품 이면에 내재한 사색의 세계를 조명한다. 소금으로 만든 언덕에 작은 깃발을 꽂은 은 작품은 김승영의 <깃발>이다. 작가는 새벽녘의 시공간을 미세하게 되살리는 푸른 조명을 사용해 전시장에 새벽의 고요와 침묵을 선사했다. 유영진은 재개발 사업으로 폐허가 된 건물을 촬영하고 그 위에 아세톤을 묻혀 사진을 번지게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다. 이미 사라진 공간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작업은 현존과 부재를 관조하며 사라져 가는 존재의 희미한 목소리에 접근한다. 이혜승의 <무제> 연작은 감정 분출을 자제한 채 담담하게 실내풍경을 그려낸 회화작품이다. 관객은 이를 보면서 마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 혼자 머물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.

